

제 79차 세계치과연맹(FDI)총회 개최

-2000년대를 향한 전 인류의 완전한 구강건강 달성-

『2000년대를 향한 전 인류의 완전한 구강건강달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 79차 세계치과연맹총회 및 학술대회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이태리의 상업도시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다.

97년도 FDI대회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공식대표단과 일반회원 및 치재협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세계 84개국에서 치과의사와 치과관련종사자, 학생들이 대거 참석하여 세계인의 치과제전을 축하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12일 개최된 총회임원선거에서는 아파자끼 차기회장이 회장에 취임했으며 C·B로스박사(Ross·뉴질랜드)가 경쟁자인 어니氏를 물리치고 차기회장에 당선됐다. 또 부회장에는 R·H·렘氏(Lemme·아르헨티나)와 J·모노氏(Monnot·프랑스)가 당선됐고 R·크론스 트롬의장(스웨덴)은 유임됐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오후 5시 시내 피에라 밀라노전시장 메인홀에서 열린 총회 A에서 아태치과연맹 사무총장 헤네디기씨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총회를 치른 이후에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식표명하여 97년 총회유치를 둘러싼 한국과의 경합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밀라노총회가 예상외로 등록자수가 적어 FDI본부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 총회개최지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97년 FDI한국개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5월 이사회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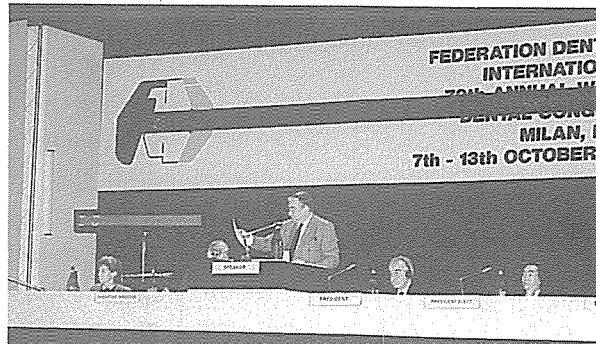
질렌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오는 10월 말 서울을 방문하여 개최장소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APDF대표자회의에서 지헌택회장이 개회사를 읽고있다〉



〈총회에 참석중인 한국대표단〉



〈12일 총회에서 크론스 트롬의장이 임원선거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